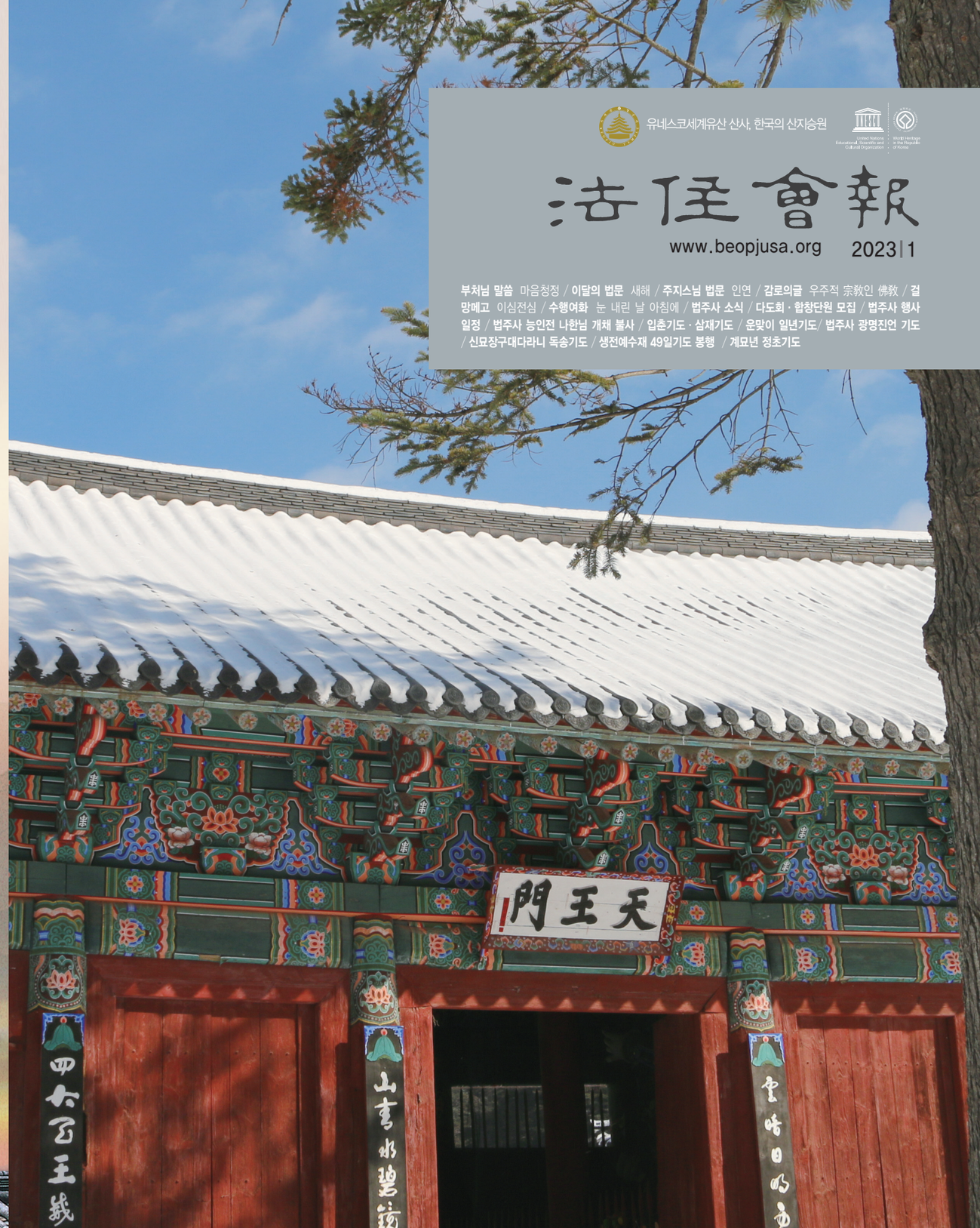
계묘년 정초기도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은이 충만하여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법주사에서는 계묘년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정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하루의 계획은 그날 아침에 세우듯이,
한 해의 계획을 정월에 불공을 통해 설계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을 대박으로 받을 수 있는 공식과 비법은 간단합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을 받으려면 복을 지으면 된다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정초기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 도 입 재** : 불기 2567년 **1**월 **24**일(음 정월 초삼일)
- **기 도 회 향** : 불기 2567년 **1**월 **30**일(음 정월 초아흐레)
- **기도동참비** : 가구당 **3**만원
- **동 참 계 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법주사 원주실 (043) 543-475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3|1

부처님 말씀 마음청정 / **이달의 법문** 새해 / **주지스님 법문** 인연 / **감로의글** 우주적 宗敎인 佛敎 / **걸망메고** 이심전심 / **수행여화** 눈 내린 날 아침에 / **법주사 소식** / **다도회 · 합창단원 모집**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능인전 나한님 개채 불사** / **입춘기도 · 삼재기도** / **운맞이 일년기도**/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생전예수재 49일기도 봉행** / **계묘년 정초기도**

마음 청정

손다야치 범지가 부처님께 사뢰옵기를,
세존이시여 호수라고 하는 개천이 있사온데 이곳에 하루 세 번씩 목욕을 하면
마음의 때가 씻어진다고 하신 부친의 말씀에 의하여 매일 세 번씩 꼭 목욕을 하였으나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으므로 이제 와서는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때가 잘 씻어지옵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대답하시기를,
"손다야치 범지야. 몸에 때가 많은 사람이라면 범지뿐만이 아니라 수천 사람이 호수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 해도 때를 씻을 수는 있지만 마음의 때는 씻을 수 없나니라.
너는 누구에게 목욕하는 법을 배웠느냐?"
범지가 대답하되,
"저의 부친에게서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시되,
"너의 부친은 도를 얻었는가?"하니 범지가 대답하되,
"도를 얻지 못했습니다."하고 대답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도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니 마음만 단정하게 하면
그 뜻이 청정하여지나니 청정하면 곧 이것이 도를 얻어짐이 되느니라."
범지가 꿇어앉아 부처님께 여쭈옵데.
"이제 부처님의 법을 듣고 이로써 마음을 깨끗이 씻었사오니
어두운 가운데 등불을 얻은 것과 같이 눈이 뜨이옵니다."
하고 찬탄하였다.

〈손다야치경〉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3 1 | 통권 372호



2 부처님 말씀 마음청정
4 이달의 법문 새해 법주사 조실 월서 대종사
8 주지스님 법문 인연 정도 스님
10 감로의글 우주적宇宙的 宗教인 佛教(Cosmic religion) 장산 스님
12 걸망메고 이심전심以心傳心 진정 스님
14 수행여화 눈 내린 날 아침에 현진 스님
17 법주사 소식 / 다도회 · 합창단원 모집
18 법주사 행사일정
19 법주사 능인전 나한님 개채改彩 불사
20 입춘기도 / 삼재기도
21 운맞이 일년기도
22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설날 합동차례
23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24 계묘년 정초기도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7(단기4356)년 1월호 통권 372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김경래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새 해

월서 대종사 법주사 조실



과거는 오지 않았고
미래는 가지 않았으며
현재는 머무름이 없으니
삼세가 모두 텅 비고 허전하다.

이 안에서 세월을 주관하는 천자존신을 알겠는가.
만일 안다면 가장 새로운 해와 달이요.

특별한 하늘과 땅이 될 것이니
전쟁과 질병과 굶주림과 같은 재앙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법문은 고려 때 진각혜심 화상께서 새해를 맞아 문인들에게 이른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새해를 맞아 여러분에게 다시 이 법어를 들려주는 것은 이 말씀에
우리 불교인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희망을 품고 계획을 세웁니다.
지난해 미처 하지 못한 일을 올해는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한 달 두 달 보내면 또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이렇게 보낸 세월입니다.
올해 맞이한 새해도 이렇게 맞이한 새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매년 헛된 꿈을 꿉니다.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며
과거는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가올 세월을 기다리며 희망에 부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 해도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진각 국사가 역설적으로 과거는 오지 않고 미래는 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아함 〈온천림경〉에서
수행자가 평생 간직할 좌우명으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또한, 미래도 바라지 말라.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모든 일에 대해서만
항상 올바르게 생각해야 하나니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불변하는 것은 없다고 아느니라.

이렇게 성인의 행을 행하는 사람은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없다.
그는 결코 근심이 없을 것이니
큰 고통과 재앙은 여기서 끝나리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현재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를 잘 살기 위해서는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일기일회一期一會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매 순간을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기일회란 한 번뿐인 인생에서 한 번만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다 한 번 뿐입니다.
두 번 다시 그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영원이란 시간도 하루하루 소중한 순간이 모여서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절대 현재의 시간입니다.
이 절대 현재의 순간을 놓치면 백만금을 주고도 그 순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매사를 울고 짜면서 안 된다고만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모든 일에 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길일을 고르고
액일厄日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좋은 날인가 나쁜 날인 가는 마음이 어떠한가에 있지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분별과 집착을 없애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고, 편안한 날이고,
소중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無事之重了事人
飢來喫飯因來眼
無事之中有事人
飢不喫飯因莫眼

일 없는 가운데 일을 마친 사람은
주리면 밥 먹고 곤하면 잠자지만
일 없는 가운데 일이 있는 사람은
주려도 먹지 말고 곤해도 자지 말라.

주지스님 법문

인 연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인연의 법칙은 언젠가는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쉽고, 슬프고, 그립고, 홀가분하고 기분 좋을지라도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새로운 해가 바뀐다는 것은
이전의 인연이 지나가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묘하다고들 합니다.
바람과 같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구름과 같이 잠시 머무르기도 합니다.
산처럼 오랫동안 있는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연의 법칙은 언젠가는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쉽고, 슬프고, 그립고, 홀가분하고 기분 좋을지라도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새로운 해가 바뀐다는 것은 이전의 인연이 지나가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
좋은 인연 맞이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주적宇宙的 宗教인 佛教(Cosmic religion)

장산 스님 법주사 사리각

욕지전생사欲知前生事　금생수자시今生受者是
욕지내생사欲知來生事　금생작자시今生作者是
-인과론因果論-

'나의 전생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다.
나의 다음 생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짓고 있는 선악의 행위들이 그것이다.'

불교가 우주적 종교라는 것은 열반경涅槃經에 이러한 구절이 있다.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悉有佛性'이라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도 불성佛性이 있어 행위의 결과에 따라 과보가 따름을 이야기하고 있다.

불교는 가르치고 있다.

불교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평등하게 일체중생들에게 이익을, 즉 도움을 주라고 한다. 2600년 역사상에서 불교가 다른 종교를 적대시하여 성전聖戰이라는 미명하美名下에 무찌르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 불교를 믿거나 말거나 선善한 행위에는 선한 과보가 따르고 악惡한 행위에는 악한 과보가 따르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깨우쳐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간존재와 세상이라는 환경, 우주에 대해 밝히고자 했던 모든 종교, 철학, 과학이 갖는 공통 관심사는 '우주와 자아自我는 무엇이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미래의 종교는 과학이 뒷받침되고 과학자(scientist)와 예술인(artist)에게 영감靈感을 줄 수 있는 교리敎理를 갖춰야 한다는 신념을 밝히면서 이런 조건에 맞는 합당한 종교를 '우주적 종교(Cosmic religion)'고 언급했다.

또 설명하기를 '우주적 종교 감정(Cosmic religions feeling)'이란 인간이 갖는 그릇된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정신과 물질의 양쪽 측면에서 나타나는 질서秩序의 정연整然함과 신비와 장엄함을 깨닫는 것이다고 하였다. (因果應報說)

종교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는 궁극적으로 다를 수 없다는 신념을 '상대성相對性 이론'에 담아 펼친 것이고, 이 상대성 이론은 불교적 우주관인 '연기설緣起說'의 과학적 발견인 동시에 해설解說인 셈이다.

연기설緣起說은 '모든 존재는 그것 자체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依存的이고 서로서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다. (相入相卽)

불교의 우주관은 〈장아함경〉 중 〔세기경〕에서는 순환 우주라는 개념이 실려있다.

대승경전의 꽃이요, 경전 중의 요의경了義經인 〈법화경〉에서는 '회삼승 귀일승, 〔회삼귀일會三歸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성문, 연각, 보살승으로 나타난 모습인 삼승三乘은 방편이요, 궁극적으로는 일불승一佛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이 법화경 요지다.



여래如來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여러 가지 지혜와 자비의 방편으로 설하셨던 과거, 현재, 미래의 수많은 평행 우주론平行宇宙論에서 우리는 이미 부처를 만났으나 탐진치 삼독의 업業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수행을 통하여 희미하게 기억을 되돌리고 있을 뿐이다.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전하고 정신문화가 찬란한 오늘날에 있어, 모든 게 풍부豊富할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풍부 속에서 정신적 빈곤에 허덕이며, 군중 속에서 섞여 살면서도 지독한 고독을 맛보는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과 합일을 이루기가 어렵고, 맛있는 음식을 뜻에 맞는 사람과 함께 하기가 쉽지 않다. 현대는 건설적이고 화합의 견해는 사라지고, 오직 내 뜻에 맞고, 우리 편이고, 아군과 적군을 편 갈라 끊임없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국민의 뜻이라며 '뜻 팔이'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크루즈 선船이 튼튼할 때, 더욱 슬기롭게 힘을 모아 미래를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一念普觀無量劫 無去無來亦無住 如是了知三世事 超諸方便成十力'-華嚴經-

'한 생각으로 아득한 세월을 두루 살펴보니, 가고 옴도 없고 머무름도 없더라.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을 사무쳐 깨달으면, 모든 방편과 수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처를 이루리라.' -화엄경-

우리는 그 해법을 우주적 종교(Cosmic religion)인 지혜와 자비를 겸비兼備한 불교적 가르침에서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심전심 以心傳心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어느 날 석가 세존世尊이 제자들을 영취산靈鷲山에 모아놓고 설법을 하였다.
그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세존은 손가락으로 연꽃 한 송이를 말없이 집어 들고 약간 비틀어 보였다.
제자들은 세존의 그 행동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가섭만이 그 뜻을 깨닫고
빙그레 웃었다. 그제야 세존도 빙그레 웃으며 가섭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정법안장正法眼藏 (인간이 원래 갖추고 있는 마음의 덕)과
열반묘심涅槃妙心 (번뇌를 벗어나 진리에 도달한 마음),
실상무상實相無相 (불변의 진리), 미묘법문微妙法門 (진리를 깨치는 마음),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敎外別傳 (언어나 경전에 따르지 않고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오묘한 진리)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하여 불교의 진수는
가섭에게 전해졌다. 이심전심이란, 말이나 글이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였다고
한데서 유래한다.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일찍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를 전한 달마대사께서 9년간의 면벽 수행을
동굴에서 하던 중 혜가스님께서 달마스님의 수행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 제자로
받아주기를 간청하며 굴 밖에서 며칠 동안 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달마스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수행에만 전념하였다.
한날은 동굴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혜가스님은 떠나지 않았다.
그런 모습에 달마스님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다. 달마 스님은 혜가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이 빨간 눈으로 내릴 수 있게 한다면 너를 제자로 받아주겠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혜가스님은 단도로 자신의 팔을 그었다. 팔에서 흐른 피가
하얀 눈에 물들어졌다. 그러자 달마스님은 혜가를 처음으로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빨간색으로 변할 리가 없지만 달마스님은 혜가에게
'너의 마음을 보여달라.'라고 하였고 혜가는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이것이 이심전심의
진정한 뜻이다. 우리는 사찰에 오면서 각자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온다.
나와 가족 등의 바람을 가지고 불보살님전에 기도를 올리고 번뇌 망상을 떨치고 행복한 마음을 얻기를
바란다. 석가모니께서는 자신은 약사와 같다. 각자의 병에 맞게 약을 처방해주지만 그 약을 먹고
안 먹고는 각자의 몫이다. 부처님의 견지에서 보면 우리는 중생이나 아이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 앞에서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께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원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는 먹지 않으려고 해도 억지로 먹이고 병을 낫게 하고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고 가르친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몫이다.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약을 먹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바른길로 인도해주시는 부모와 같은 마음이 아닌것일까? 번뇌와 시련을 겪고 고통을 바라만 보고
스스로가 해결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냐는 의문이 생긴다. '번뇌시도장煩惱是道場'이라는 말이 있다.
번뇌가 오면 반드시 깨달음이 온다. 라는 말이다. 석가모니께서는 우리가 모두 부처나 보살이어야 한다는
마음이다. 우리는 아이나 중생이 아니고 부처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부처와 같은 존재다.
나만을 의지하고 나에게 위로를 받는 이에게는 나는 부처님과 같은 존재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보다는 가족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의지한다.
기도를 하면, 번뇌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만은 나의 바람을 놓고, 오직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오직 불보살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정근이라고 한다. 반복해서 명호를 염송하다 보면 나를 잊어버리고 무념무상의 삼매에
들어간다. 삼매에 빠지게 하는 것이 곧 기도의 목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음으로써
진정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반야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자력 신앙이다.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고. 세상의 이치인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중생이 아니라 불보살이 되어야 하는 이유고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이는 나 자신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이심전심의 뜻인 것이다.



●●수행여화

눈 내린 날 아침에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겨울 숲이 묵은 잎들을 떨쳐버리고 가벼운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으면 저러한 풍경을 연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텅 비웠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고 의연하다.
그러므로 겨울은 숲의 본질을 비로소 드러내는 계절이다.

밤새 함박눈이 내렸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소리를 잠결에 들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밖은 온통 눈 세상.
더군다나 밤사이에 상고대가 형성되어
기막힌 설경화를 그려 놓았다.
빈 가지마다 눈꽃을 달고 있어서
마치 겨울 축제를 열고 있는 것 같다.
숲은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뜻밖의 선물을
준비해 놓은 셈이다.
겨울 숲이 묵은 잎들을 떨쳐버리고
가벼운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으면
저러한 풍경을 연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텅 비웠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고 의연하다.
그러므로 겨울은 숲의 본질을 비로소 드러내는
계절이다. 주렁주렁 매달고 있던 장신구를
벗어버린 겨울 숲을 볼 때마다 나 또한 정리할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된다. 버릴 때 버릴 수 있고,
떠날 때 떠날 수 있다면 우리 삶도 아름답고
가벼울 것이다.

인도 고전에 전해오는 이야기다.
어떤 사람이 1만 루피의 금화를 모았다.
그의 소망은 1만 루피가 모이는 날 그 돈을
자신이 존경하는 성자에게 바쳐서 내생의
안락한 삶과 공덕을 짓는 일이었다.
그 시절 1만 루피의 금화라면 신의 궁전까지도
살 수 있는 큰돈이었다.
마침내 그는 존경하는 성자 앞에
돈 보따리를 내놓으면서 말했다.
"이 돈을 성자께 바치오니 부디 받아 주십시오."
성자는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선뜻 그 거금을 받아들였다.
"내가 그 돈을 받아들이겠소.
그런데 나를 위하여 한 가지만 더 수고해 주시오."
남자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제자나 다름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키십시오."
성자가 다시 말했다.
"이 금화를 모두 갠지스강으로 가져가서
강물 속에 던져버리고 오시오."
그 남자는 깜짝 놀랐다.
"1만 루피의 금화를 강물 속에 버리라고요?"
그러나 이제 금화의 소유주는 성자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는 금화 보따리를 들고
강으로 갔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그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확인하고 오라."
한 사람의 제자를 시켜 그를 찾아보게 했다.
그때 강변에는 수많은 군중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 남자는 금화를 하나씩 집어 들어
돌멩이에 두들겨 본 다음 강물 속으로
던지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 금화를 줍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성자는 말했다.
"그에게 가서 일러라.
어떤 것을 수집할 때라면 그 숫자를
헤아려야겠지만, 버리는 마당에
어째서 시간을 낭비한단 말인가.
버릴 때는 미련을 두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지니고 있으면 그 무게에 삶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계절에 나 자신은 버리고 비울 게 없는지 새삼 돌아보게 된다.

한꺼번에 몽땅 내 던져버려라!”

인생이란 얻는 것과 잃는 것으로 얽혀져 있다.
누구나 가지는 것을 좋아할 뿐,
놓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버릴 때는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선택 해야 옳다.
설령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속할 때는 미련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재산을 형성하는 시간은 평생일지라도
쓰는 일은 잠시면 가능하다.
그러므로 좋은 일에 보시할 때는 셈하거나
헤아리지 말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눈을 감는 날까지 쓰지 못하고
관리만 하다가 삶을 마감할 확률이 높다.
세상일이란 지금 눈앞의 일만 가지고
손익을 따질 것도 아니다.
생애의 과정을 통해 나의 선택과 결단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욕심에만 매몰되면
금생에는 복덕과 선업을 쌓을 수 없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다음 생을 위해 저금하고
이월하란 뜻. 이승의 화폐는 저승에서는
통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저승에서도 인용되는
무루복無漏福을 지어야 한다고 경전마다
강조하는 것이다.
중국의 국민배우 조본산은
‘모아두면 유산이고 쓰면 재산’이라는 말을 남겼다.
돈 버는 목적은 잘 쓰기 위해서라는 뜻일 테다.
자기 재산일 때 뜻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유산이 되면 그때부터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겨울나무가 주머니를 비우고 직립해 있듯
그렇게 홀가분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하는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지니고 있으면
그 무게에 삶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계절에 나 자신은 버리고
비울 게 없는지 새삼 돌아보게 된다.

눈 내린 아침에 겨울 숲을 보며
쓸데없는 소리가 길어졌다.
나 또한 선뜻 실천하지 못하는 일을
누구에게 권한단 말인가.
잠시 상념에 젖어 지루한 법문이 되고 말았다.
이제부터 제설작업을 할 시간이다.
털모자와 장갑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눈길 내려 나가야겠다.

●법주사 소식


11월 24일 초하루


11월 25일 법주사 김장


12월 14일 37사단 MOU 체결


12월 21일 동지 새알울력

법주사 솔향기 다도회 회원모집

법주사에서는 문화의 꽃이라 칭송되는
다도회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뜻있는 신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 010-5498-5546 (회장)
010-7400-1388 (총무)

법주사 합창단원 모집

불심이 있고 불법홍포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함께해요”

연락처 : 010-5262-0871 (단장)
010-4019-2033 (총무)



눈꽃과 함께하는 법주사

마음도 함께 상쾌해지는

달이 구름에서 나온 것처럼
이전에는 악업을 지은 사람도
지금 다시 악업을 짓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

법구경

2023. 1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12.10 해맞이 법회	2 11	3 12	4 13	5 14	6 15	7 16 광명진언기도 어린이법회
8 17	9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다도반법회	10 19 합창단법회	11 20	12 21	13 22	14 23 어린이법회
15 24 관음재일	16 25	17 26	18 27	19 28	20 29	21 30 다라니독송기도 법주회 법회
22 설날 1.1 초하루	23 2 다도반법회	24 3 정초기도입재	25 4	26 5	27 6	28 7 어린이법회
29 8 약사재일	30 9 정초기도회향	31 10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법주사 능인전 나한님 개채改彩 불사







속리산 법주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 앞에 능인전이 있습니다.
이곳 능인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에 두분의 보살님 그리고
열여섯분의 나한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곳의 보살님과 나한님은
부처님과 같이
금으로 옷을 입고 계시지 않고
색이 있는 옷을 입고 계셔서
이러한 옷을 새로 입혀드리는 불사를
개채改彩라고 말합니다.
금번 법주사 능인전 개채불사는
보살님 2분과 나한님 16분에게
새롭게 옷을 해드리는 것으로
이러한 중생들의 불사의 마음이
나한님들께 닿아 불사의 인연 중생들에게
그 공덕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개채불사와 기도의 원력으로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입춘기도



입춘은 처음 찾아오는 절기로서 봄을 알리는 시점인
동시에 역학으로는 새해가 처음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입춘대길이나 소
문만복래 등의 글귀를 써서 기둥이나 대문에 붙이고
한 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특히 삼재가 들면 모든 일에 장애가 생긴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삼재 불공을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입춘을 맞이하여 법주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를 봉행하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 **기 도 입 재** : 불기 2567년 **1**월 **29**일(음 1월 8일) 일요일
- **기 도 회 향** : 불기 2567년 **2**월 **4**일(음 1월 14일) 토요일
- **기도동참비** : **3**만원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및접수** : 원주실 (043)543-4755

삼재기도



삼재가 들면 모든 일에 장애가 생긴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삼재불공을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법주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를 봉행하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 **일 시** : 불기 2567년 **2**월 **4**일(음 1월 14일) 토요일
- **동 참 금** : 1인 **3**만원(기도비,부적 포함) 오곡비 **1**만원
- **준 비 물** : 속옷 1벌(착용한 것도 가능) ※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눌삼재입니다.

운맞이 일년기도

귀의 삼보하옵고,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대웅보전에서 새해 운맞이 일년기도를
봉행할 예정이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가족의 건강과 소원성취 이루십시오.

- **입 재** : 불기 2567(2023)년 **1**월 **1**일(음 12월 10일) 일요일
- **회 향** : 불기 2567(2023)년 **12**월 **31**일(음 11월 19일) 일요일
- **동 참 금** : **3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1**월 **7**일(음 12월 16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 2023년 **1**월 **21**일(음 12월 30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

설날 합동차례

그동안 보살펴주신 조상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인연 되는 유주무주 일체영가 및
조상님 제례를 준비하여 차례를 올리고자 합니다. 댁에서 차례를 못 지내시는 가정이나
제사를 올려드리고 싶은 영가님들이 계신 분은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67(2023)년 **1**월 **22**일(음 1월 1일) 일요일　■ **동참금** : **10**만원
■ 문　의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법주사에서는 살아 있는 동안에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에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불교의 수행의식인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수행과 회향을 실천하는 "자리이타행"으로 살면서
지은 죄와 빚을 갚는 의식으로 자신의 업을 참회하고 앞으로 악업을 짓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보시를 통해 공덕을 쌓는 의식입니다.
또한 단순한 신앙이 아닌 신행信行으로 스스로 실천하는 불교의 가장 적합한 실천행으로써
불자라면 반드시 동참해야 할 의례입니다.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계묘년 윤2월에 맞춰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라는 인연을 통해 법주사 불자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회하며
함께 보시하는 공덕을 통해 스스로 복을 짓고 스스로 복을 받는 불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생전예수재 봉행일정**

- 입재 : 2월 20일 (음력　2월　1일) 월요일
- 1재 : 2월 26일 (음력　2월　7일) 일요일
- 2재 : 3월　5일 (음력　2월 14일) 일요일
- 3재 : 3월 12일 (음력　2월 21일) 일요일
- 4재 : 3월 19일 (음력　2월 28일) 일요일
- 5재 : 3월 26일 (음력 윤2월　5일) 일요일
- 6재 : 4월　2일 (음력 윤2월 12일) 일요일
- 회향 : 4월　9일 (음력 윤2월 19일) 일요일

■ **동참금** : 1인 100,000원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